

<위씨절행록> 연구*

곽 정 식**

차 례

- | | |
|-----------------|-----------------------|
| 1. 들어가기 | 3. 작품에 나타난 烈行의 사회적 의미 |
| 2. 구성적 특징과 서술의식 | 1) 여성 수난 |
| 1) 구성적 특징 | 2) 존재론적 전환 |
| 2) 서술의식 | 4. 마무리 |

국문초록

이 글은 <위씨절행록>에 나타난 여성의 열행을 중심으로 개별 작품으로서의 성격과 의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먼저 구성적 특징과 서술의식을 중심으로 작품의 열녀소설적 성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작품에서 위씨는 남편의 절도 정배와 시가에서의 축출을 계기로 수절형 열녀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열행의 실천 과정에서 작품 전편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과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 이로 보아, 인물 구성에서 위씨가 그 중심에 위치할 뿐 아니라, 사건 구성 또한 위씨의 열행을 중심으로 서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또한 서술

* 이 논문은 2011학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성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의식을 보면, 주씨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 부정적으로 서술하는 데 비해, 위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 옹호하는 태도를 취하여 때로는 깊은 연민과 동정적 심정을 드러내기도 하고, 정절을 지키고자 하는 위씨의 신념과 행동에 대해 稱歎의 감정과 언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였다.

아울러 위씨의 열행을 중심으로 개별 작품으로서의 독자적 성격과 의의에 대해 검토하였다. 남편의 절도 정배와 시가에서의 축출에서 비롯된 위씨의 열행은 친정에서의 가출과 원적사에서의 削髮爲僧으로 한층 더 구체화되고 있는데, 이때 원적사는 위씨가 훼손의 위협에서 벗어나 정절을 지킬 수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식으로서의 인륜을 저버려야 하는 곳인 데다 지리적, 공간적으로도 바깥세상과 격리된 채 死地와 별반 다름이 없는 곳으로 그려져 있어 夫婦之義를 위한 열행이 여성의 수난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열행에 따르는 수난을 여타의 열녀소설과 달리 불교에 대한 작자의 긍정적인 시각을 반영하여 원적사에서의 삭발위승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여주인공 위씨가 죽음에 상응하는 열행의 실천과정을 통해 불합리한 여성 현실에 대한 자각과 새로운 인식으로서의 질적 변화, 곧 존재론적 전환을 이룩하는 것으로 그려냄으로써, 단순히 여성의 열행을 美化, 顯彰하는 데서 그치는 여타의 열녀소설과는 그 성격을 크게 달리하는 바, 이 점에서도 <위씨절행록>에 대해 특별한 의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위씨절행록>, 열녀소설, 구성적 특징, 서술의식, 동서갈등, 여성의 열행, 여성 수난, 존재론적 전환

1. 들어가기

이 연구는 <위씨절행록>이 여성의 열행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라는 관점에서 시도되는 것으로, 먼저 구성적 특징과 서술의식을 중심으로 작품의 열녀소설적 성격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에 나타난 열행의 사회적 의미를 살펴 <위씨절행록>이 지니는 개별 작품으로서의 의의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일찍이 김기동은 작품에서 主動적으로 사건을 전개시키고 있는 結構를 추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고소설의 유형을 분류하는 가운데 <위씨절행록>을 여성의 정절을 드러내는 작품이라고 하여 윤리소설로 분류하였다.¹⁾ 그러나 우쾌제는 가정소설의 개념과 유형을 논의하면서 <위씨절행록>의 경우 媿父를 중심으로 세 子婦 사이에 벌어지는 親情爭取 사건을 그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하고, 신분적 갈등의 쟁쟁형 가정소설로 분류하여 견해를 달리하였다.²⁾ 또 김응환은 효·열·우애·우정을 주제로 한 조선조 윤리소설을 다루는 가운데 <위씨절행록>은 여주인공 위씨가 동서와의 갈등과 남편의 유배, 친정아버지의 再嫁에 대한 강권 등으로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자신이 목적했던 烈을 지킴으로써 다시 부부가 화합하게 되었다고 하여, 烈 주제의 윤리소설로 규정하고, 주제의 구현 양상과 그 의미를 간단히 살폈다.³⁾ 그러나 이들의 논의는 기본적으로 고소설의 유형 분류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대체적인 내용만을 소략하게 언급하는 데서 그쳐 본격적인 작품론에 이르지 못하는 듯하였다.

이리하여 <위씨절행록>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김연숙은 <위씨절행록>이 여성의 처지에

1) 김기동, 『한국고전소설연구』, 교학연구사, 1983, 645-648쪽.

2) 우쾌제, 『한국가정소설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8, 41쪽.

3) 김응환, 『조선조 윤리소설 연구』, 한양대학교원 박사논문, 1993.

서 여성의 감정과 사고를 형상화하여 여성의 자아실현과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작품이라고 보고, 이른바 중심이탈성을 가지는 여성주체적 소설로서 의의를 가진다고 하였으며,⁴⁾ 이지하는 여성이 현실 속에서 마주치게 되는 다양한 갈등들을 통해 여성적 문제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하고, 그와 같은 여성적 특징을 작품의 구조와 표현, 주제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⁵⁾

이와 함께 작품에 나타난 동서갈등에 관심을 보인 연구로서, 먼저 박영희는 <위씨절행록>이 동서갈등을 주갈등으로 하는 작품이라고 주장하고, 갈등의 전개양상 및 그 성격과 의미를 <반씨전>과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두 작품이 모두 동서갈등을 통해 가문내적 질서의 회복을 보여준다고 하고, 그러나 <반씨전>이 가부장적 권위를 재확인시켜주는 데 비해 <위씨절행록>은 가부장적 권위의 혼란을 드러내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⁶⁾ 이어서 이지하도 두 작품이 모두 동서갈등으로 인해 야기된 여주인공의 수난을 주내용으로 삼고 있지만, <위씨절행록>이 인간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요소를 통해 한 여성의 정체성 확립 과정을 다루는 반면, <반씨전>은 家權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을 통해 가문내의 질서가 확립되는 과정을 다룬다고 하였다.⁷⁾

이렇게 볼 때, <위씨절행록>에 대한 접근 방법은 그 동안 여주인공의 열행에 비중을 두거나, 동서간의 대립과 갈등을 중심적인 것으로 이해하거나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서 유형 분류 역시

4) 김연숙, 고소설의 여성주의적 연구, 서강대학교원 박사논문, 1995. 고소설의 주제적 여성인물에 관한 연구, 『동방학』 2,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1996, 179-208쪽. 『고소설의 여성주의적 연구』, 국학자료원, 2002, 127-166쪽.

5) 이지하, <위씨절행록>의 여성소설적 성격, 『고소설연구』 19, 한국고소설학회, 2005, 87-112쪽.

6) 박영희, 고소설에 나타난 동서갈등 연구, 『이화어문논집』 23, 이화어문학회, 2005, 171-198쪽.

7) 이지하, 同壻葛藤 전개 양상을 통해 본 <위씨절행록>과 <반씨전>의 비교 연구, 『고전문학연구』 30, 한국고전문학회, 2006, 323-350쪽.

윤리소설 혹은 가정소설로 다루어졌던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는 고소설의 유형 분류와 관련하여 대체적인 내용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작품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를 보면, 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논의가 주로 작품의 후반부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짐으로써 작품 전반을 균형 있게 일관된 원리로 해명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⁸⁾ 더구나 동서갈등을 중심으로 <반씨전>과의 비교 연구를 시도한 경우, <위씨절행록>을 과연 <반씨전>과 같이 작품 전반의 플롯이 동서갈등에 의해 주도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위씨절행록>에서 작품 전반의 플롯을 주도하는 갈등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필자는 우선 작품 분석을 통해 <위씨절행록>이 수절 열녀에 대한 소설적 형상화에 다름없다는 것을 밝히고, 아울러 작품에 나타난 열행의 사회적 의미를 살펴 개별 작품으로서 <위씨

8) 김연숙은 고소설 가운데 ‘작품 속에서 유교적 윤리를 형상화함으로써 독자를 교화하려는 성향’을 가리켜 ‘중심지향성’이라 명명하고, 이러한 소설들을 ‘여성길들이기 소설’이라고 부른다. 또 ‘중심지향성의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어 비판하거나 중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을 ‘중심이탈성’이라고 명명하는 한편, ‘여성의 처지에서 여성의 감정과 사고를 형상화하여 여성의 자아실현과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려는 작품’을 ‘여성주체적 소설’이라고 부르고, ‘중심지향성과 여성길들이기 소설’, ‘중심이탈성’과 ‘여성주체적 소설’로 구분하여 몇몇 작품을 중심으로 그 내용과 성격을 논의하면서, 중심이탈성이라는 것조차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중심지향성의 일부로서 중심에 있는 인물을 비판하는 논리도 유교적 윤리에 바탕을 두고, 유교적 윤리의 편법적인 적용 내지는 권력에 의한 왜곡을 비판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또 중심지향성이 약한 소설일수록 여성주체적 소설에 가까워질 수는 있지만, 여성이 삶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 반드시 충·효·열의 윤리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여성주체적 소설과 중심이탈성 사이에 정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유교적 윤리를 기준으로 중심지향성의 개념을 규정한 것은 유교적 윤리를 ‘중심’에 놓은 것으로서 중심이탈성이라면 곧 유교적 윤리에서의 이탈이라 할 것이므로 적절한 용어나 개념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김연숙, 『고소설의 여성주의적 연구』, 국학자료원, 2002, 15-34쪽 참조.

절행록>이 지니는 의의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로써 본고는 <위씨절행록>에 대한 본격적인 작품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위씨절행록>은 필사본으로 국립도서관 소장본 <위씨전행록 권지단>과 羅孫本 <衛氏節行錄> 및 <魏氏節行錄>이 전하고 있으나, 필사자와 필사 연도에서 차이가 있을 뿐, 내용면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본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생략하기로 한다. 텍스트는 『필사본고전소설전집』 13권(영인본, 동국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0)에 실려 있는 국립도서관본을 취하기로 한다.

2. 구성적 특징과 서술의식

소설 작품은 대체로 인간생활에 있어 아주 특징적이고 의미있는 사건을 유기적 실체로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위씨절행록>을 살펴보면, 우선 여주인공을 중심으로 열행의 실천과 그 결과에 주목하거나, 혹은 동서간의 갈등과 그 해결 과정에 주목하게 될 터인즉, 이는 앞서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도 이미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두 사건 내지는 모티프 가운데 실제로 작품 전편의 플롯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아울러 구체적인 서술과정에서 드러나는 서술자의 서술의식을 중심으로 작품의 기본적인 성격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와 같은 논의를 위해 작품의 줄거리를 단락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소승상과 부인 반씨는 슬하에 아들 셋을 두었는데, 둘째며느리 주씨를 편애하여 대소사를 맡아 처리하게 하다.
- (2) 셋째아들 소잠이 18세에 급제하고 한림학사에 오르다.
- (3) 위승상과 부인 최씨가 슬하에 딸 하나를 두었는데, 자색이 아름답고 위인이 女中君子이다.

- (4) 위승상이 처남인 최경이 찾아와 사윗감을 천거하자 거절하고 소승상택에 청혼하다.
- (5) 위승상의 무남독녀 위영이 소승상의 아들 소잡과 혼인하다.
- (6) 소승상의 둘째며느리 주씨가 셋째며느리 위씨의 자색과 출천지효를 시기하여 시부모에게 거짓으로 참소하다.
- (7) 한림학사 소잡이 승상 최경을 탄핵하다가 최경으로부터 도리어 참소를 받아 絶島定配되다.
- (8) 위씨가 孀家에서 축출되다.(최경이 위씨의 외삼촌이라는 사실을 들어 동서 주씨가 모함하고, 시모 반씨가 내쫓다.)
- (9) 친정아버지 위승상이 딸의 장래를 걱정하여 최경의 말을 듣고 위씨를 改嫁시키려고 하다.
- (10) 위씨가 죽기를 각오하고 부모 몰래 孀家를 찾아갔으나 문전박대를 당한 채 쫓겨나다.
- (11) 위씨가 꿈에 나타난 선관과 남편의 지시에 따라 원적사라는 절에 가서 의탁하다.
- (12) 위씨가 절에서 아들을 낳은 후 시녀 선의를 위승상택으로 보냈으나 길을 찾지 못하고 돌아오다.
- (13) 광풍에 실려온 위씨의 편지를 위승상 부부가 받아보고 딸을 찾으려 나섰으나 찾지 못하다.
- (14) 남편 소잡이 유배에서 풀려나 아내를 찾고자 하나 찾지 못하다.
- (15) 위씨의 아들이 밤에 蘇氏家를 찾았으나 의심을 받아 쫓겨나고 外家로 가서 용납되다.
- (16) 남편 소잡과 친정아버지 위승상이 원적사로 위씨를 찾아와 만나고 함께 위승상택으로 돌아가다.
- (17) 남편의 두 형들이 찾아와 빚기를 청하고, 또 남편이 함께 孀家로 갈 것을 권하자, 위씨는 거절하고 남편에게 再娶를 권하다.
- (18) 위씨의 아들이 편지를 보내 歸家를 청하나 위씨는 편지로 거절하다.
- (19) 시부 소승상이 아들, 손자와 함께 위씨를 찾아가 節孝를 살피지 못한 잘못을 사과하고 위씨를 데리고 귀가하자 시모 반씨 또한 빙설 같은 절개를 살피지 못한 잘못을 뉘우치다.
- (20) 시모 반씨가 원적사 諸僧의 공덕을 갚기 위해 잔치를 베풀고, 좌중 사람들이 보는 데서 위씨의 정절을 칭찬하고 주씨의 간악함을 꾸

짓다.

(21) 위씨의 열녀 節行으로 슬하의 8자3녀가 다 부귀영화를 누리다.⁹⁾

1) 구성적 특징

위에서 보듯이, <위씨절행록>의 인물 구성은 우선 소씨가의 며느리 가운데 언사가 교활하고 아침하기를 일삼는다고 하는 주씨와, 자색이 출중한 데다 효성이 출천하고 위인이 여중군자라고 하는 위씨를 각각 둘째며느리와 셋째며느리로 설정하여 두 부류로 나누는 데서 출발한다. 이어 주씨가 시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위씨를 일방적으로 시기하고 모함하는 가운데 소승상과 부인 반씨는 주씨를 편애하여 맏며느리를 제치고 집안 대소사를 맡아 처리하게 함으로써 시부모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밖에 소승상의 세 아들과 맏며느리 강씨는 주씨와 위씨 사이의 대립, 갈등관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인물로 등장한다. 따라서 주씨와 위씨 사이의 동서갈등은 그만큼 단순하고, 그로 인해 작품 전편에서 차지하는 기능이나 역할 또한 극히 부분적, 부차적인 데서 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남편의 절도 정배로 위씨가 시가에서 쫓겨나자, 주씨는 위씨의 外叔 최경이 일찍이 자신의 妻姪을 위씨의 배필로 천거했던 일로써 위씨의 정절을 펴내주어 대립하게 되고, 또 친정에 돌아온 딸로 인해 위씨의 친정부모와 시부모 사이에 대립, 갈등 관계가 형성된다. 그리고 남편을 위해 정절을 지키고자 하는 위씨와 딸의 장래를 걱정하여 개가를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친정아버지가 서로 대립하고, 여기에 다시 개가를 강권하는 외숙 최경과 이를 반대하는 친정어머니가 대립한다. 이 밖에 천상황궁의 신선과 絶島에 정배된 남편이 차례로 위씨의 꿈에 나타나 휘

9) 『필사본고전소설전집』 13권(동국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0)에 실려 있는 국립도서관본 <위씨절행록>을 김연숙, 『고소설의 여성주의적 연구』, 국학자료원, 2002, 부록 249-284쪽에 轉載하고 있는 바,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용할 경우에는 후자를 참고하기로 한다.

절 위협에 직면한 위씨를 심산궁곡의 원적사로 인도한다. 원적사에는 100여인의 여승들이 기거하고 있는데, 모두 남편 사후에 부모의 개가 권유를 거부하고 출가한 재상가의 며느리들로서, 이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 위씨 또한 斷髮爲僧으로 지내며 아들을 낳아 기르고 정절을 지킨다.

이렇게 볼 때, <위씨절행록>의 인물 구성은 시부모의 사랑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주씨와 위씨의 극히 단순화된 동서갈등을 부차적, 지엽적인 것으로 하고, 남편의 절도 정배 및 시가에서의 축출을 계기로 하여 전개되는 위씨의 열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작품 전반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여주인공 위씨의 열행과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의미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사건의 구성적 특징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위씨절행록>의 발단부는 주씨와 위씨를 대립적인 인물로 설정하는 한편, 언사가 교활하고 아첨하기 잘하는 주씨에 의해 갈등관계가 일방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데 특징이 있다.

장조의 부인은 강씨요 층조의 부인은 듀씨니 듀씨 층식이 슈려하고 언시 교활하야 오직 아쳐러하기를 일시도 잊지 아니하고 승상과 부인이 편혹히 주씨을 스랑하여 디소세를 혼갈갓치 듀씨의 말을 좃더라¹⁰⁾

위에서 보듯이, 주씨는 소씨가 의 둘째며느리로서 아름다운 용모와 아첨하는 태도로 시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집안 대소사에서 만며느리를 제치고 주도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새로 재색과 효성을 갖춘 위씨가 아랫동서로 들어오자, 시부모의 사랑을 빼앗길 것을 걱정하여 미워하고 시기하며 온갖 허물을 지어 시부모에게 참소한다.

주씨 그전 자식과 간교로 구고의 사랑을 받치더니 위씨 자식이 주씨에서 지지 아니하고 효성 출천하니 주씨 구고에게 사랑을 앗길가 하야

10) <위씨절행록>, 김연숙, 앞의 책, 부록 250쪽.

사니와 틈을 타 위씨의 허물을 지어 빅가지로 간교로 구고귀 참조하니 승상과 부인이 주씨 참조함을 오히려 녀기고 위씨의 정성과 효도를 살피지 아니하고 즈익하난 정이 날노 쇠록하야 … 주씨의 참조 갈수록 불측하여 빅주의 허물과 이매한 말삼을 발명할 길 업서 위씨 다만 마음을 써기고 하날만 부라지지며 … 주야 채읍하야 형용이 효초하야 옥이 모릭 못침갓고 쏘치 이우난닷 하더라¹¹⁾

이리하여 위씨는 시집에서 매우 어려운 처지가 되는데, 이때 마침 남편 소잡이 위씨의 외숙인 최경의 독단을 상소하다가 도리어 절도 정배를 당하게 된다. 이에 주씨는 위씨의 정절을 폄훼하며 더욱 험뜯고 모함하였고, 시부모 역시 집안의 불행이 며느리 위씨와 그 친정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아들이 귀양길에 오르기도 전에 위씨를 친정으로 쫓아버린다. 여기서 소잡의 절도 정배는 위씨에게 있어 곧 남편의 不在를 의미하는 바, 위씨는 夫婦之義를 위해 시가에서의 축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절개를 지킬 것을 다짐한다.

첩의 죄악이 무상하야 비록 출뵈되오나 복중의 가진 거시 아난지라 천지일월이 무심치 아니하와 만일 귀자을 탄싱하거든 소가의 자손 향렬에 참여케 하소서 구고난 만슈무강흠을 축수하압나니다 쇼첩은 절기를 직히여 타일에 디하의 가 구고랄 되시리이다.¹²⁾

이를 계기로 위씨의 정절의식 내지는 열행이 점차 前景化되는 가운데 친정으로 돌아온 위씨는 친정아버지와 외숙의 개가 권유로 훼손의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드디어 납채일이 다가오자, 죽더라도 소씨가 문전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고 밤에 시녀를 데리고 시가를 찾아가지만 문전박대를 당한 채 또 쫓겨난다. 강물에 빠져 죽으려다 문득 정신을 잃고 있을 때에 仙官과 남편이 차례로 꿈에 나타나 원적사라는 절에 가

11) <위씨절행록>, 252쪽.

12) <위씨절행록>, 255쪽.

서 의탁할 것을 당부한다. 이에 위씨는 원적사를 찾아가 여승들의 권유로 삭발하고 범명을 백원이라 한다. 그곳에서 아들을 낳아 기르는 동안 시녀가 위승상택을 찾아 나섰다가 찾지 못한 채 그냥 돌아오고, 친정아버지는 위씨가 보낸 편지를 받고 딸을 찾으려고 나섰다가 찾지 못하였으며, 남편 소잡 또한 유배에서 풀려나 아내를 찾고자 하였으나 찾지 못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는다. 그 사이 위씨가 낳은 아들이 외가를 찾아가자 친정아버지와 남편이 원적사로 가서 위씨를 만나고 함께 위승상택으로 돌아온다. 친정에서 시가로 들어가자고 하는 남편의 요청을 거절하던 위씨는 시부가 찾아와 節孝를 살피지 못한 잘못을 뉘우치고 귀가를 종용하자, 드디어 시가로 복귀하고 시부모에 대한 孝養이 극진한 가운데 열녀로 칭송을 받는다.

이와 같이 남편의 절도 정배와 시가에서의 축출에 따른 위씨의 고난은 다만 정절을 지키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열행의 결과 그 주체인 위씨는 물론 자손들까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으로 결말을 삼았다. 뿐만 아니라 위씨를 혈뜬고 심지어 그녀의 정절의식마저 폄훼하던 둘째며느리 주씨 또한 위씨의 열행으로 인해 개과천선하게 됨으로써 시부모의 사랑 다툼에서 비롯된 동서간 갈등까지 위씨의 열행에 전적으로 收斂되어 해소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위씨와 주씨의 동서간 갈등은 작품 내적 기능에서 발단·절정 등의 機緣을 제공하고 대립·갈등의 심각성을 강화시켜 긴장을 조성하는 등의 삽화적 기능을 담당하는 데 비해, 위씨의 열행은 작품 전편의 플롯을 주도하는 핵심 모티프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하겠으며,¹³⁾ 이야기가 철저히 여주인공 위씨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까닭도 그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13) 이현홍, 조선조 송사소설 연구, 부산대학교원 박사학위논문, 1987, 10쪽 참조.

2) 서술의식

이제 <위씨절행록>에 나타난 서술의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서술의식은 작품의 성격을 규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는 바, 앞서 <위씨절행록>의 구성적 특징이 가지는 의미까지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서술 태도에서, 주씨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듀씨 즈식이 슈려하고 언식 교헐햐 오직 아쳐러햐기을 일시도 잊지 아니햐고”¹⁴⁾ 라고 하고, 또 “쥬씨 구고에겨 사랑을 앓길가 하야사니와 틈을 타 위씨의 허물을 지어 빅가지로 간교로 구고기 참조하니”¹⁵⁾ 라고 한 것이 그 예이다. 이와 같은 서술 태도는 주씨를 편애하여 집안의 대소사를 주관하도록 한 시부모의 태도와는 상반된 것으로 매우 부정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위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승상과 부인이 쥬씨 참조함을 울히 너기고 위씨의 정성과 효도를 살피지 안니하고 즈이하난 정이 날노 쇠록햐야 슬햐 위씨 종시 부모기 그름이 업고 식의 효성을 더욱 극진이 하더러 쥬씨의 참조 갈사록 불측하여 빅쥬의 허물과 익매한 말삼을 발명할 길 업서 위씨 다만 마음을 썩기고 하날만 부라지지며 ... 쥬야 체읍햐야 형용이 쥬쥬햐야 옥이 모티 못침갓고 쏘치 이우난닷 하더러¹⁶⁾

위에서 보듯이, 위씨는 시부모가 자신의 정성과 효도를 살피지 않는 태도 종시 거스르지 않고 효성을 더욱 극진히 한다고 하고, 불측한 주씨의 참조에 발명할 길이 없어 마음을 썩이고 하날만 부르짖는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밤낮 눈물로 지내는 위씨의 형용을 가리켜 ‘구슬이 모래에

14) <위씨절행록>, 250쪽.

15) <위씨절행록>, 252쪽.

16) <위씨절행록>, 252쪽.

묻힌 것 같고 꽃이 시들어 버린 것 같다고 하여 깊은 연민과 동정적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술자는 위씨의 정절을 지키기 위한 신념과 행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여아의 마음이 추월갓고 절개 빙옥갓트니 엇지 훼손하리잇가 요사니 제 거동을 살피이 승상이 무삼 뜻줄 두실가 저허하야 화정누의 올나 면목을 보이지 아니코 단장을 전폐하고 승히 설위하야 소낭 심각하고 이스니 옥갓흔 얼골리 날노 글너가니 피련 승상의 말삼을 들어 달은 가문의 안니 가려 하오리다 충신은 불사이군이요 열녀난 불경이부라 하니 승승은 나라이 망하면 달은 임군을 섬길잇가 만일 여아을 사랑히시거든 이갓탄 비류한 말삼을 제게 들이지 말소셔¹⁷⁾

위의 인용문에는 정절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당대 여성들의 인생관이 잘 반영되어 있다. 시가에서 쫓겨나 친정에 돌아온 위씨는 곧 딸의 장래를 걱정하는 친정아버지로부터 개가를 권유 받게 되는데, 이때 친정 어머니는 개가와 같은 비류한 말로써 딸의 정절을 더럽히지 말 것을 간청하고, 딸로 하여금 절개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임을 일깨워 준다. 그러나 생전 사후를 딸에게 의탁하고자 하는 친정아버지는 선조 봉사를 위해 딸의 개가를 서두르게 되고, 위씨의 외숙인 최경이 혼처를 주선하자 마침내 딸을 불러 개가할 것을 강권한다. 그러자 위씨는 “자식이 부모의 말삼을 거의 불효막디하오나 만일 님몸을 천이 가지면 이난 불효의셔 더 큰지라 빅번 죽사와도 듯지 못흐올소이다”¹⁸⁾ 라고 하고, 외숙을 향해서는 “비록 님군의 후비라 하여도 님 송빅갓한 정절을 일치 아닐거시오 빅만 창검으로 겁칙하여도 님 빙옥갓한 절행은 앗지 못흐리르드”¹⁹⁾ 라고 하여 개가를 결단코 거부한다.²⁰⁾ 이와

17) <위씨절행록>, 259쪽.

18) <위씨절행록>, 260-261쪽.

19) <위씨절행록>, 261쪽.

20)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僕循의 <進三綱行實箋>의 다음과 같은 기록에서 어느

같이 위씨와 친정어머니를 통해 여성의 정절의식을 절대시하는 한편, 서술자는 위씨의 절개를 지키려는 마음이 추월 같다고 하고, 밤낮 남편 생각에 위씨의 옥같은 얼굴이 글러간다고 하여 적극적인 지지와 한없는 연민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천상황궁의 신선이 위씨의 꿈에 나타나 태항산 원적사에 가서 은신할 것을 지시하고, 또 원적사의 여승들에게는 위씨를 기이한 사람이라고 하여 공경하고 대접할 것을 당부하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는 바, 이 또한 위씨에 대한 지지, 옹호의 연장선상에 있음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서술자의 위씨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에서의 서술은 마침내 시부모로 하여금 위씨에 대한 태도를 고쳐 스스로 前過를 뉘우치고 사례하는 것으로 그려내는 한편, 둘째며느리 주씨까지도 개과친선하여 어진 부인이 되었다고 하는 결말에서 완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씨 소생의 손자가 집으로 찾아오자, 승상과 부인이 “이전의 어미 구박하던 일은 진실노 무산 ㅁ암일년ㄱ 오날 이에 크게 ㅅ달으니 마암의 척척하미 그지 업도다”²¹⁾ 라고 하고, 이어 아들을 불러 “네 퍃항산의 가 며나리를 마자 오라 니 비록 노흔한들 엇지 붓그러온 마암이 업 스리요”²²⁾ 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부는 친정집에 머물고 있는 위씨를 직접 찾아가 節孝를 살피지 못한 잘못을 사죄하는 것으로 그려내고, 시모 또한 위씨가 시부를 따라 시집으로 돌아오자 위씨의 정절을 치하하고 현철한 며느리를 박대한 잘못을 사죄한다.

남자의 절효을 살피지 못하고 가만은 참언을 고흥하여 그리 되었시니
붓그럽고 뉘우침을 어이다 증양하리요 바라건디 허물치 말고 말 위에

정도 그 사실성을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世宗實錄』 권56, 세종 14년(1432) 6월 9일 2번째기사. 女必貞而行必篤 父母不能奪其志 昭然天日之照臨 刀鋸安敢摧其心 凜乎冰雪之皎潔 在丈夫而未易 爲烈婦頗多.

21) <위씨절행록>, 278쪽.

22) <위씨절행록>, 278쪽.

올으라²³⁾

위씨의 빙설갓한 절기난 전고의도 업난 거살 구고 무상하야 너의 성
효를 살피지 못흐고 주씨의 참언을 일전되여 고흥하여 현철한 머나리를
박디 무지하야 팔연이 되도록 철윤지의을 쓰친난지라 그 통분하고 누우
침을 엇지 오날날 다 베푸리요 괴탄하고 슬푸드 이제난 전일 허물을 고
치고 시사랑을 먹금을 거시니 위시난 안심하야 괴렴치 마음을 축원하노
라²⁴⁾

이리하여 애초 주씨를 편애하고 위씨를 박대하던 시부모는 원적사 제
승을 위해 베푼 잔치 자리에서 위씨의 정절을 치하하는 한편, 주씨에 대
해서는 간악한 죄를 꾸짖고 개과천선하기를 당부한다. 주씨와 위씨의 선
악 관계가 시부모에 의해 최종적으로 反轉되고 있거니와, 이 또한 서술
자의 위씨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에서 서술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하겠
다.

무상고 불칙한 주씨야 너 말을 자서이 드르라 이전의 네 거동이 교할
한지라 우리 과히 사랑하니 네 교만방자하여 위씨의 용피 단정흐고 효
행이 출인한 거살 식기하야 온 가지 말노 쓰겨 칠연이 되도록 오류이
삿쳐시니 창천이 유의하고 귀신이 감동하여 위씨의 정절은 오날날 닛타
나 빗치고 주씨의 간악은 전과하야 참괴할 거시니 사람의 선악을 엇지
가히 더푸리요 이훗부터 전일의 잘못함을 사레하야 씻고 먹음을 다시
먹어 우이랄 힘스고 성효을 다하여 간극이 업게 하라 ... 주씨 스스로
기과천선하여 어진 부인이 되니라²⁵⁾

위에서 보듯이, 시모는 주씨를 무상하고 불측하며 교만방자하다고 꾸
짖고, 주씨로 인해 칠년이 되도록 오류이 끊어졌다고 하면서, 위씨에 대

23) <위씨절행록>, 282쪽.
24) <위씨절행록>, 282-283쪽.
25) <위씨절행록>, 283-284쪽.

해서는 용모가 단정하고 효행이 出人하다고 하고, 이에 蒼天이 유의하고 귀신이 감동하매 위씨의 정절은 세상에 드러나 비치고, 주씨의 간악은 전파되어 참괴할 것이므로 사람의 선악은 덮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더구나 서술자는 “위부인의 옥갓탄 열녀 절행을 보전하야 말동의 팔즈스녀 다 부귀영화하고 즈손 만당흔이 엇지 거록지 안니흐리요 천추 만세에 전하기로 흐노라”²⁶⁾ 라고 하는 것으로 작품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처럼 위씨의 절행으로 인해 8자3녀가 모두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하고, 또 이를 기록으로 남겨 千秋萬代에 전하고자 했다는 데서 <위씨절행록>이 여성의 열행에 대한 稱譽, 顯彰은 물론 사회적 교화를 위해 이루어졌음이 자명하다고 할 수 있는 바, 이것이 곧 <위씨절행록>에 나타난 서술자의 서술 의식이라 할 것이다.

3. 작품에 나타난 烈行의 사회적 의미

1) 여성 수난

위에서 살폈듯이, <위씨절행록>은 여성의 열행을 작품의 구조 원리로 하여 이룩된 열녀소설이다. 이와 같은 열녀소설은 대개의 경우 개별 작품에서 결혼을 했거나 정혼한 여주인공이 일생 동안 남편을 위해 정절을 지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되, 먼저 여주인공으로 하여금 정절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외부의 장애가 있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인공이 그와 같은 장애를 극복하고 마침내 정절을 지켰다는 것으로 기본적인 서사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이와 같이 여성의 수난을 전형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열녀소설은 일종의 女性受難談이라 해도 무방하다고 하겠다. 이에 <위씨절행록>에 나타난 열행을 여성 수난의 측면에서 살

26) <위씨절행록>, 284쪽.

퍼 개별 작품으로서의 독자적 성격을 알아보기로 한다.

여주인공 위씨의 열행은 남편의 절도 정배 및 시가로부터의 축출에서 비롯된다. 남편 소잡이 최경을 탄핵하다가 도리어 참소를 받아 절도 정배에 처해지자, 시부모는 최경이 위씨의 외숙이라는 이유로 위씨를 내쫓는다. 그리고 주씨는 위씨가 소잡과 혼인하기 전 최경이 자신의 妻姪을 위씨의 배필로 천거했던 사실을 들어 위씨의 정절을 폄훼하고 모함한다. 또 친정에 돌아온 위씨는 친정아버지의 강압적인 개가 권유로 더욱 곤경에 처한다. 그러나 위씨는 죽음을 각오하고 정절을 지킬 것을 다짐한다. 여기서 죽음을 각오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처한 현실이 엄혹하다는 것을 뜻한다.²⁷⁾ 그리고 그와 같은 현실은 실제로 친정에서의 가출과 원적사에서의 削髮爲僧으로 구체화된다.

위씨는 친정아버지가 자신을 개가시키려고 하자 부모 몰래 친정에서도망쳐 나온다. 부모의 뜻을 거역하는 불효보다 몸을 더럽혀 정절을 지키지 못함이 더 큰 죄요 불효라고 생각한 때문이다. 그리하여 시가에 몸을 의탁하고자 사정을 아뢰고 선처를 구하나 시부모는 오히려 아들의 절도 정배를 위씨 때문이라고 하고, 바야흐로 위씨를 죽이고자 한다고 하여 위씨를 용납하지 않는다. 위씨가 다시 뱃속의 아이를 내세워 애걸하나 시부모는 끝내 문전박대로 내쫓는다. 이에 위씨가 죽기를 결심하고 강물에 투신하려다가 정신을 잃고 있던 중 천상황궁의 신선이 꿈에 나타나 태향산 원적사에 가서 은신할 것을 지시하고, 또 남편이 꿈에 나타나 神人이 가리키는 길을 좇아 목숨을 보전하라고 당부한다. 이로써 원적사가 세속과 격리된 곳으로 정절 모해 혹은 훼손의 위협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²⁸⁾ 이에 위씨는 결국 태향산 원적사를

27) 이와 같은 여성의 열행과 관련하여, 이혜순은 인간 비극의 표상이고, 여성 종속과 인간성 박탈의 극치를 이루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의 존재 가치를 심각하게 인식시킨 의의를 보여준다고 하였다. 이혜순, 조선조 열녀전의 전개와 유형, 이혜순·김경미, 『한국의 열녀전』, 월인, 2002, 40쪽.

28) 이는 朝鮮朝의 崇儒抑佛政策에도 불구하고, 작자의 불교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찾아가 몸을 의탁하여 지내는데, 그곳은 산중 4백여 리나 되는 데다 태산이 첩첩하여 遊山하는 俗客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라고 하고, 또 여승들은 모두 남편 사후 정절을 지키기 위해 출가한 재상가의 며느리들로 그 수가 100여인에 이른다고 하였다.

계승이 모다 이로되 우리도 다 직상가의 며나리더니 가군 일직 죽고 부모 다란 쓰절 두시거날 도망하여 이 산중의 와 불당을 짓고 부처탈 숭상하연지 임의 삼십연이라 이제 낭자도 나히 절므시고 용피 단정하시나 님의 우리랄 좃츠 몸을 의탁하시려면 세상 얼골노 못게시리라 아모려도 머리를 버히고 불법을 비호소서²⁹⁾

이처럼 원적사의 여승들은 모두가 남편 사후에 부모의 개가 권유를 거부하고 삭발위승으로 정절을 지켜왔다고 하고, 위씨에게도 또한 삭발위승으로 불법을 배우기를 권한다. 그러자 위씨는 다음과 같이 몹시 주저하는 태도를 보인다.

나난 규중의셔 미화잠 국화잠의 칠보 든중이 하다가 불히하여 화를 만나 면코져 왓스나 예셔 늘글 쓰지 업사니 엇지 얼골을 곳치고 몸을 변화야 적막산중의셔 일싱을 보너리요 부모 싱각난 사정과 낭군 잇지 못하난 인정이 날로 심하여 아직 즘근 은신하였다가 미구의 나가려 하노라³⁰⁾

위에서 보듯이, 위씨는 애초 삭발위승에는 관심이 없으며, 부모와 남

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녀자의 上寺禁止와 관련하여 『太宗實錄』 권8, 태종 4년(1404) 12월 8일 2번째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기록을 볼 수 있다.

佛氏之道 以離世絕俗爲宗 婦女之義 以正靜自守爲主 以故國家嚴立法令 凡婦女上寺者 痛行禁斷 以明風教 近來法令廢弛 婦女上寺 絡繹於道 宣淫失節 職此之由 甚非明時之令典也 願令攸司 婦女上寺者 勿論父母追會 一皆禁斷 以正風俗 上皆允之.

29) <위씨절행록>, 267쪽.

30) <위씨절행록>, 267쪽.

편 생각에 다만 화를 피해 잠시 은신하고자 할 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잠깐 머물더라도 그냥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여승들의 강권에 못 이겨 위씨는 결국 삭발하고 법명을 백원이라 한다.³¹⁾ 그리고 스스로 말하기를, “나난 부모의 사랑하시난 독여로서 절을 위하여 부모의 유체알 변하여 세상사람이 안니 도여시니 부모 간장을 써겨 인운을 발였는지라”³²⁾ 하고 탄식한다. 여자로서 정절을 지키기 위해 삭발위승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 처지이나, 결국은 부모에 대해 자식으로서의 인륜을 저버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원적사는 산중 4백여 리나 되는데다 태산이 첩첩하여 遊山하는 俗客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위씨의 시녀는 위승상택을 찾아 나섰다가 동서를 분변치 못하여 그냥 돌아오고 말았으며, 친정아버지 또한 위씨가 보낸 편지를 받고 딸을 찾으려고 나섰다가 결국 찾지 못했다고 하였다.

승상이 노비를 무슈이 다리고 오육양식을 싸고 티항산을 차자 티산준 영을 무슈이 거너여 방방곡곡을 슈업시 차려되 아모디 인난줄 모올너라 지닌난 산승과 횡여다려 무르디 아지 못할너라 곳곳지 엿보기를 달포되고 히포되나 동너 종적을 만너지 못하여 통곡하고 도라와 탄식하여 이 로디 “제 익미히 죽여 영혼이 원이 도여 편지로 하여곰 우리를 쓰기미 로다” 하고 더욱 슬허하더라³³⁾

위에서 보듯이, 승상이 많은 노비를 데리고 일년이 넘도록 방방곡곡을

31) 조선조에는 승려가 되는 길이 극히 제한적이었으나 수절을 위해 출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였다. 『世宗實錄』 권10, 세종 2년(1420) 11월 7일 3번째기사에서 수절을 위한 부녀들의 출가에 관한 다음과 같은 기록을 볼 수 있다.

凡剃髮者 必受度牒 方許出家 已有著令 無識僧徒不畏國令 不唯兩班子弟有役軍人鄉吏驛子公私隸 擅自剃髮 甚爲未便 今後兩班子弟自願爲僧者 父母族人告僧錄司 報禮曹 啓聞取旨後 納丁錢 給度牒 許令出家 其餘有役人及獨子處女 一皆禁斷 違者還俗 當差其父母師僧及寺主 從重論罪 婦女守節剃髮者 不在此限.

32) <위씨절행록>, 268쪽.

33) <위씨절행록>, 270쪽.

수없이 찾아보았으나 끝내 딸의 종적을 알 수 없었다고 하였고, 이에 딸이 원통하게 죽은 것으로 생각하여 슬퍼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원적사는 위씨가 정절 모해 혹은 훼손의 위협에서 벗어나 정절을 지킬 수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식으로서의 인륜을 저버려야 하는 곳인 데다 지리적, 공간적으로도 바깥세상과 격리된 채 死地와 별반 다름이 없는 곳으로 그려져 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여주인공 위씨는 남편 不在로 인한 정절 모해 또는 강압적인 훼손 위협에 직면하여 열녀로 형상화되고, 또 실제로 夫婦之義를 위한 열행의 실천과정에서 죽음이나 다름없는 시련과 고통을 겪는다. 이처럼 <위씨절행록>이 여성의 열행을 핵심 모티프로 하여 여성의 수난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는 여타의 열녀소설과 다르지 않다고 하겠으나, 그러나 작자의 불교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반영하여³⁴⁾ 여성의 열행에 따르는 수난을 원적사에서 삭발위승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 할 것이다.

2) 존재론적 전환

앞에서 남편의 절도 정배 및 시가에서의 축출, 친정아버지의 강압적인 개가 권유에서 비롯된 위씨의 열행이 정절 모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식이자 그 자체로 여성의 수난을 의미하는 것임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위씨의 열녀로서의 수난은 남편 소잡이 유배에서 풀려난 후 원적사를 찾아가 함께 친정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위씨의 아들 소정이 蘇氏家를 찾아오자, 위씨의 시부모는 잘못을 뉘우치고 아들 소잡이로 하

34) 천상황궁의 神仙과 남편이 차례로 위씨의 꿈에 나타나 원적사에 가서 목숨을 보전하라고 당부했다거나(265쪽), 100여인의 원적사 여승들이 모두 재상이 며느리들로 정절을 지키기 위해 삭발위승하였다거나(267쪽), 또 위승상 부부가 원적사 여승들을 초대하여 잔치하고 金帛을 많이 주어 절을 重修케 했다거나(283-284쪽) 함으로써 불교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준다.

여금 원적사에 가서 며느리를 맞아오라고 당부한다. 이에 소잡이 妻家를 찾아가 丈人 위승상을 모시고 함께 원적사로 가서 위씨를 데려오는데, 도중에 안부를 묻고 인사하는 사람이 不知其數였고, 또 시가에서 사람을 보내 전날의 허물을 뉘우쳐 사례할 뿐 아니라, 시숙들이 찾아와서 뵈기를 청하는 데다 남편이 함께 孀家로 돌아갈 것을 권한다. 이처럼 시가 식구들이 위씨를 찾아와 모두 잘못을 뉘우치고, 남편이 함께 시가로 돌아가자고 했다는 것은 곧 남편의 부재와 정절 모해에서 비롯된 위씨의 수난이 더 이상 지속될 여지가 없음을 뜻한다.

그런데 위씨는 남편이 시가로 돌아가자고 하자, 다음과 같이 시가 식구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친정부모를 봉양코자 하여 남편의 뜻에 따르지 않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위씨의 행위는 전통적인 열녀관이나 정절의식으로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데서 문제가 된다.

싱각하오니 전일 첩의 박명하온 타스로 절도 정비가 계시니 첩이 오 날날 군의 문하의 가오면 또다시 무슨 죄일 이쥬가 염여하오며 음탕한 말삼으로 너치시니 즘금까지 싱각할사록 간장이 녹난 닷하여이다 속속의 차자오심은 과연 무산 마암이온지 전일 원망할 썩여난 도라보지 아 이하시고 경상 무사지일에난 보고져 하시니 엇지 군자의 관후한 인정과 정당한 도리리요 하물며 첩의 학쌔쌍친이 괴식이 엄엄하와 녀일이 만치 안니하압고 슬하의 봉양할 아달자식이 업사오이 어차어피에 다시 가올 마암이 업사올지라 윈컨디 낭군은 다시 놓퓌 가문의 취쳐하와 어진 안 희을 마자 부모랄 잘 셴기시고 천금갓탄 정이랄 사랑하여 쉽게 성취하 소셔 천첩의 소망 다만 이쥬이로소이다³⁵⁾

위에서 보듯이, 위씨는 음탕한 말을 듣고 시가에서 쫓겨난 일을 생각하면 간장이 녹는 듯하다고 하고, 어려운 때에 돌아보지 않던 시숙들이 無事之日에 찾아온 것은 무슨 마음인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제 시가로 돌아가면 또다시 무슨 죄를 쓰게 될지 걱정된다고 하였다. 또 위씨

35) <위씨절행록>, 280쪽.

는 남편에게 친정에서 부모를 봉양하겠다고 하고, 시가로 돌아갈 마음이 없으니 再娶하여 아들을 잘 키우라고 당부한다.

이처럼 위씨는 남편과 시가에 대하여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는 出嫁外人이라는, 즉 시집간 딸은 친정 사람이 아니고 남이나 마찬가지로는 당대 사회의 통념과 배치되는 것이다. 여성의 경우 결혼과 함께 자신의 부모와는 멀어지고 시부모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며, 시부모를 잘 모시는 것은孝이자 동시에 烈을 실천하는 것이 된다. 이 때문에 결혼한 여성은 친정에 자주 갈 수도 없거니와 친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조차 금기시되었다.³⁶⁾ 이로 보면, 위씨의 태도 변화는 그와 같은 사회적 관습과 제도에 대한 비판이라 할 수 있으며, 남편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친정부모를 효로써 봉양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자식된 도리임을 주장한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위씨의 태도 변화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기서 다시 위씨가 겪은 고통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보기로 한다. 원적사에서 위씨는 아들을 낳아 기르는 동안 여승들의 강권에 못 이겨 삭발위승으로 지내는데, 이때 스스로 말하기를, “나난 부모의 사랑하시난 독여로서 절을 위하여 부모의 유체알 변하여 세상사람이 안니 도여시니 부모 간장을 서겨 인운을 바렛는지라”³⁷⁾고 하였다. 이리하여 시녀를 보내 친정부모에게 안부를 전하고자 하였고, 시녀가 길을 찾지 못하고 돌아오자 인륜을 저버린 죄를 하늘이 미워한 때문이라고 하여, 목욕재계 후 하늘에 빌어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광풍에 날려 보낸다.

부자지친은 오운의 웃듬이라 하였사오니 부자지닌난 습강의 웃듬이라 하오니 이 두 가지에 버서나면 인운의 참예치 못할지라 …꿈의 신선이 내려와 정도랄 가라치거날 첩첩산중을 츠즈 티향산을 드러오니 한

36) 범절을 약간 알지라도 어른의게 취품하고 어른 보시난 디 잠간이라도 친정 생각한단 괴식을 뵈이지 마라(『여계약』, 한글필사, 경북대학교 소장, 73쪽)

37) <위씨절행록>, 268쪽.

암직 잊거날 두 시어로 더부러 몸을 의탁하고 모진 목숨을 위하여 세상
 얼굴을 고쳐 머리 버히고 장삼을 입어 금불기 종경하니 츠회라 일신이
 처량하고 형용니 흥참하니 소녀의 팔지 이렛타t 기박할줄 뉘 아라시리오
 … 오히라 신흔정성을 뉘가 하며 조석봉양을 뉘 하리오 소녀의 죄악이
 산히갓타라 학썰쌍친을 하직하고 인간불효 도엿사오니 황천이 무어너기
 사 선의 보너여 오던 길을 좃지 못하니 오히라 춘풍추월의 친정 싱각난
 마암이 축쳐상심이루소이다 …아모려나 슈이 고향의 도라가 부모알 피
 시고 벽연 향연을 밧들기 원하나니 봉망 부모난 소녀의 죄을 용서하와
 잔명을 어엿비 너기사 슈이 와 다려가압기를 천만지축이로소이다³⁸⁾

위에서 보듯이, 위씨는 삼강오륜에서 특히 父爲子綱과 父子有親을 강
 조하고 있는 바,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면 인륜을 저버린 것이라고
 하고, 자신은 삭발위승으로 昏定晨省과 朝夕奉養을 못함으로써 불효한
 죄악이 태산 같다고 하였다. 친정아버지가 자신을 개가시키려고 하자 부
 모 몰래 도망쳐 나올 때에 부모의 뜻을 거역하는 불효보다 몸을 더럽혀
 정절을 지키지 못함이 더 큰 죄요 불효라고 생각했던 위씨가 원적사에
 들어와 아들을 낳고 삭발위승으로 지내는 동안 부모에 대한 도리가 중
 요하다는 것을 확고히 인식했음을 뜻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인식을 토
 대로 자식에 대한 태도 역시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나고 있는 바, 시부
 와 남편이 아들을 볼모로 하여 위씨의 귀환을 재촉하고, 편지를 아들이
 쓴 것처럼 꾸며 모성애에 직접 호소하기도 하나, 자신은 부모를 모시게
 되고 아들은 아비를 찾았으므로 모자가 다같이 소원을 이루었다고 하고,
 아들을 보지 못하기로서 전혀 애석할 것이 없다고 한다.³⁹⁾

이와 같은 위씨의 태도는 당대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을 깨뜨리는 것
 으로서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각과 새로운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위씨가 원적사에서 겪은 수난
 에 대해 일종의 제의적 성격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38) <위씨절행록>, 269쪽.

39) <위씨절행록>, 281쪽 참조.

살핀 대로, 원적사는 위씨가 정절을 지키기 위해 삭발위승으로 지내는 동안 자식으로서의 인륜을 저버려야 했던 곳이며, 지리적, 공간적으로도 바깥세상과 격리된 채 死地와 다름없는 곳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여성 수난으로서의 위씨의 열행은 곧 假死狀態, 혹은 상징적인 죽음에 분명히 대응한다고 볼 수 있겠다. 흔히 죽음은 최고의 입사식으로, 즉 새로운 영적 존재의 시작으로 간주되거나,40)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결국 원적사에서 위씨가 정절을 지키기 위해 겪게 되는 고통은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기 위해, 즉 재생하기 위해 우주적인 밤, 혹은 죽음에로의 상징적인 귀환을 뜻한다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자각과 새로운 인식을 보여주는 위씨의 태도 변화는 결국 죽음을 통한 재생으로서 질적 변화 내지는 존재론적 전환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질적 변화를 거쳐 위씨는 더 이상 주변적 존재로 살아가기를 거부한 것이라 하겠다.

위씨의 주변적 존재로서의 삶은 남편의 절도 정배로 인해 시가에서 쫓겨나고, 또 친정아버지의 강압적인 개가 권유로 가출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거니와,41) 앞에서 보았듯이, 원적사에서 돌아온 위씨는 이제 남편과 시부모, 아들에 의해 강요된 삶을 거부한 채, 자신이 의식과 행동의 주체가 되는 의지적 삶을 살기로 했던 것이다. 이에 시부가 친히 위씨를 찾아가 節孝를 살피지 못한 잘못을 사죄함으로써 위씨가 시가로 귀환하게 되는데, 위씨가 시부를 따라 시집으로 돌아오자, 시모 또한 위씨의 정절을 치하하고 현철한 며느리를 박대한 잘못을 사죄한다. 또 둘째며느리 주씨도 스스로 개과천선하여 어진 부인이 된다. 더구나 위씨는 자신이 무남독녀이기 때문에 絶孫이 확실한 친정 가문에 대하여 자신이 낳은 아들로 하여금 後嗣를 잇게 한다.

40) 멀치아 엘리야데(이동하 역), 『聖과 俗 ; 종교의 본질』, 학민사, 1983, 148쪽.

41) 김연숙, 앞의 책, 158쪽 참조.

위씨 연호야 팔즈습녀을 두어서 모다 부모의 선풍을 달마난지라 계순 중의 출등호니 쇼공과 부인이 더욱 스랑호더라 위씨 습즈 경으로 위 봉스를 맞들게 호고 쇼훈님이 호흔 위공의게 반즈지도랄 다호니 위공 천금갓탄 일너로 스싱을 몰나 슬허호시다가 말동의 일신이 강녕호니라⁴²⁾

이처럼 위씨는 자신이 낳은 8자3녀 가운데 셋째아들을 친정인 위씨 가문의 계승자로 삼아 祖先奉祀를 맡도록 하고, 남편 또한 아들이 없는 처가를 위하여 半子之道를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성은 태어나면서부터 出嫁外人이라 하여 결혼을 친정 가문과의 단절로 인식하고, 또 무남독녀는 곧 絶孫이라고 하는 가부장적 편견을 극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 터인데,⁴³⁾ 이는 위씨 자신이 죽음이나 다를 바 없는 고통 속에서 질적 변화를 겪고 스스로 주체가 되는 의지적 삶을 살고자 한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위씨절행록>은 단순히 고통을 수반한 여성의 열행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美化, 顯彰하는 데서 그치는 여타의 열녀소설과는 크게 다르다고 하겠다. 위씨의 열행은 다만 여성 비극으로서의 수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상응하는 열행의 실천과정을 통해 불합리한 여성 현실에 대한 자각과 새로운 인식으로서의 질적 변화, 다시 말해서 존재론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형상화되고 있는 바, 이 점에서 개별 작품으로서 특별한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42) <위씨절행록>, 284쪽.

43) 김연숙은 위씨가 시가로 귀환한 것과 관련하여, 그것이 비록 행복한 결말로 표현되어 있기는 하나 그 이전의 위씨의 행동으로 보아 타협이며, 오히려 소망이 좌절되는 것처럼 인식된다고 하고, 또 내면적으로는 남성중심적인 가부장적인 현실에 반발하면서도 가부장적인 체제를 벗어날 수 없다는 자각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으로, 현실적 한계에 부딪혀 소망이 좌절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위씨의 시가에서의 삶이 주체적 삶의 실행이자 가부장적 편견을 극복한 것이라고 보면, 그 평가는 달라질 것이다. 김연숙, 앞의 책, 131-132쪽 참조.

4. 마무리

앞에서 논의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결론으로 삼는다.

먼저 <위씨절행록>의 열녀소설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작품의 구성적 특징을 인물과 사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위씨절행록>의 인물 구성은 시부모의 사랑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주씨와 위씨의 극히 단순화된 동서갈등보다 남편의 절도 정배 및 시가에서의 축출을 계기로 하여 전개되는 위씨의 열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라서 작품 전반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여주인공 위씨의 열행과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사건의 구성적 특징을 보면, 위씨와 주씨의 동서간 갈등은 작품 내적 기능에서 발단·결정 등의 機緣을 제공하고 대립·갈등의 심각성을 강화시켜 긴장을 조성하거나, 극적 전환을 위한 장치로서의 삽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데 비해, 위씨의 夫婦之義를 위한 열행은 작품 전반의 플롯을 주도하는 핵심 모티프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이야기가 철저히 여주인공 위씨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로써 <위씨절행록>을 여성에 의한 열행의 始末을 구조 원리로 하여 전개되는 작품이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작품의 성격을 규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관건으로서 작자의 서술의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작자가 주씨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위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 옹호하는 태도를 취하는 바, 때로는 깊은 연민과 동정적 심정을 드러내기도 하였고, 또 정절을 지키고자 하는 위씨의 신념과 행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稱歎의 감정과 언사를 표출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위씨절행록>은 여성의 열행에 대한 稱譽, 顯彰과 함께 사회적 교화라고 하는 작자의 서술의식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한편 <위씨절행록>에 나타난 열행의 사회적 의미를 중심으로 개별

작품으로서의 독자적 성격과 의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남편의 절도 정배 및 시가에서의 축출에서 비롯된 위씨의 열행은 주씨의 정절 모해 및 친정아버지의 강압적인 개가 권유로 인해 점차 前景化되는 가운데서 위씨는 죽음을 각오하고 정절을 지킬 것을 다짐하는 바, 정절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각오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정절을 지킬 수 없다는 것으로서, 그만큼 여성이 처한 현실이 각박하고 혹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실제로 위씨의 열행은 친정에서의 가출과 원적사에서 削髮爲僧으로 한층 더 구체화되고 있는데, 여기서 원적사는 위씨가 정절 모해 혹은 훼손의 위협에서 벗어나 정절을 지킬 수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식으로서의 인륜을 저버려야 하는 곳인 데다 지리적, 공간적으로도 바깥세상과 격리된 채 死地와 별반 다름이 없는 곳으로 그려져 있어 夫婦之義를 위한 열행이 여성의 수난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위씨절행록>이 여성의 열행을 핵심 모티프로 하여 여성의 수난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는 여타 열녀소설과 마찬가지로, 열행에 따르는 수난을 특별히 불교에 대한 작자의 긍정적인 시각을 반영하여 원적사에서의 삭발위승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위씨의 열행은 다만 여성 비극으로서의 수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상응하는 열행의 실천과정을 통해 불합리한 여성 현실에 대한 자각과 새로운 인식으로서의 질적 변화, 다시 말해서 존재론적 전환을 이룩하는 것으로 그려냄으로써, 단순히 여성의 열행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美化, 顯彰하는 데서 그치는 여타의 열녀소설과는 크게 다르다고 하고, 이 때문에 <위씨절행록>에 대해 개별 작품으로서의 특별한 의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 김기동, 『한국고전소설연구』, 교학연구사, 1983.
- 김연숙, 고소설의 여성주의적 연구, 서강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 _____, 고소설의 주체적 여성인물에 관한 연구, 『동방학』 2,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1996, 179-208쪽.
- _____, 『고소설의 여성주의적 연구』, 국학자료원, 2002.
- 김응환, 조선조 윤리소설 연구, 한양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박영희, 고소설에 나타난 동서갈등 연구, 『이화어문논집』 23, 이화어문학회, 2005, 171-198쪽.
- 우쾌제, 『한국가정소설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8, 41쪽.
- 이지하, <위씨절행록>의 여성소설적 성격, 『고소설연구』 19, 한국고소설학회, 2005, 87-112쪽.
- _____, 同壻葛藤 전개 양상을 통해 본 <위씨절행록>과 <반씨전>의 비교 연구, 『고전문학연구』 30, 한국고전문학회, 2006, 323-350쪽.
- 이헌홍, 조선조 송사소설 연구, 부산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 이혜순, 조선조 열녀전의 전개와 유형, 이혜순·김경미, 『한국의 열녀전』, 월인, 2002, 40쪽.
- 멀치아 엘리아데(이동하 역), 『聖과 俗 ; 종교의 본질』, 학민사, 1983, 148쪽.

<Abstract>

A Study on <Wissijulhaengrok>

Kwak, Jung-Si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personality as a heroic woman story and it's own individuality as a particular work on <Wissijulhaengrok>.

In constitutional feature of the characters, the greater part of characters are connected with leading a chaste of Wissi as a heroine. Therefore the cohabitation trouble between Wissi and Jussi is secondary, of minor importance, so much too it exercised an influence in part or in secondary on the whole of the work.

The other side, in constitutional feature of the affairs, the cohabitation trouble between Wissi and Jussi takes charge an episodical functions in the internal of the work and leading a chaste of Wissi as a heroine takes charge important function as the core motive which assumes leadership of plot in the whole of the work. Therefore <Wissijulhaengrok> is a heroic woman story which is expanded by the beginning and the end of leading a chaste of Wissi as the structure principle.

Next connection the narration-consciousness of the writer, The writer takes negative, critical eyes upon Jussi but takes positive support, safeguard eyes upon Wissi. therefore <Wissijulhaengrok> has come into being by narration-consciousness of the writer same as admiration and social education.

And relation the individuality as a particular work on <Wissijulhaengrok>. A chaste of Wissi is correspond with death. Anyone cannot leading a chaste, if don't prepare for death, it means inhumanity and harshness of woman's reality. <Wissijulhaengrok> is similar to the other heroic woman stories in the point of which takes a chaste of woman as the core motive and describes woman's sufferings, but the sufferings that is followed in the course of practicing a chaste of Wissi are largely shaped by being ordained a priest of Onejuk temple(원적사) and in this respect I understood that <Wissijulhaengrok> was reflected the writer's affirmative visual to Buddhism.

Moreover a chaste of Wissi in <Wissijulhaengrok> is not ceased in a disaster of woman as a tragedy, introduces Wissi into a new being through process of qualitative alteration. therefore <Wissijulhaengrok> is different largely with the other heroic woman stories which adjust the focus on beautification and awarding of woman's chastity.

Key Words : <Wissijulhaengrok>, heroic woman story, constitutional feature, narration-consciousness, cohabitation trouble, woman's chastity, woman's sufferings, qualitative alteration

■ 논문접수 : 2011년 6월 30일
■ 심사완료 : 2011년 8월 5일
■ 게재확정 : 2011년 8월 10일